

가족이 힐링이다

아들! 퇴소식때 따뜻하게 안아보자~

시대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변하지만 결국 우리가 치유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은 가족뿐이다.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 손자 3대가 어우러지고 부대끼며 살아왔던 우리네. 언제부터인가 3대가 2대로 바뀌고, 핵가족화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나홀로 가구마저 자연스러워져가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 돈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마저 죽이는 파룬 앞에 우리는 절망하곤 한다. 그래도 누구나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가족, 가족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다. 힘들고 절망이 밀려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견디고 이겨낸다. 한달음에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 진정한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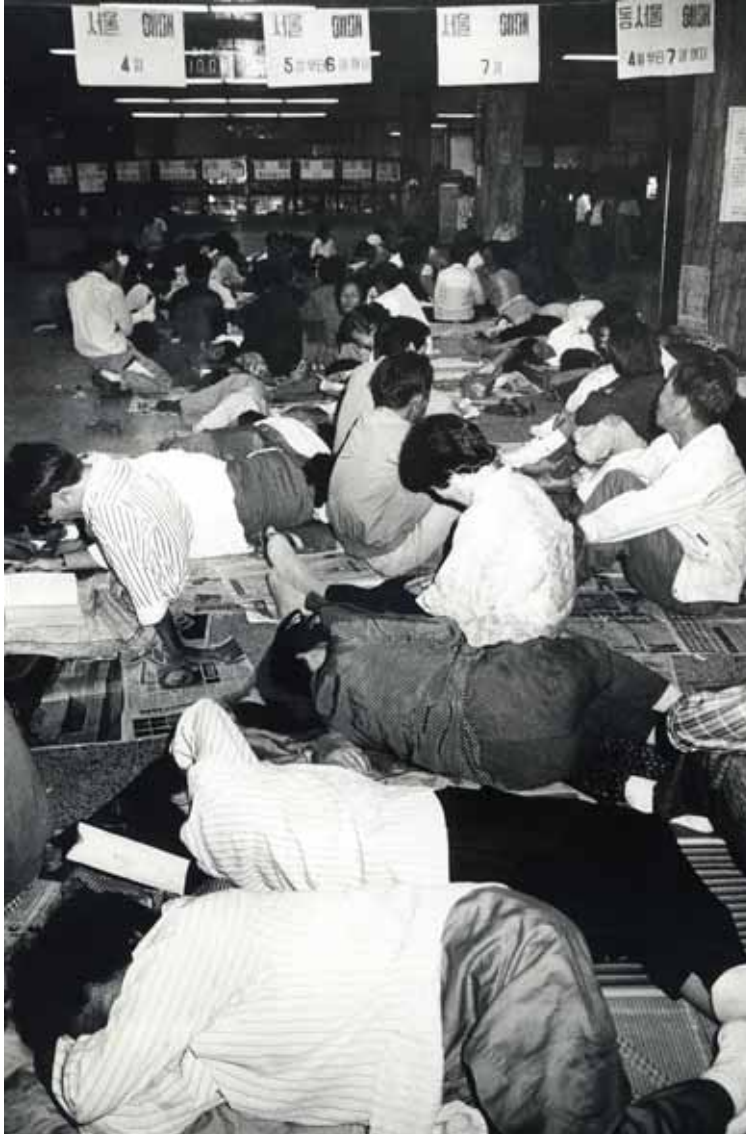
“이번 버스는 꼭 타야돼”

1976년 9월17일 광주 무등경기장 앞. 승용차가 귀했던 당시 고향을 갈 수 있는 수단엔 오로지 기차와 버스 뿐이었다. 당시 터미널로는 엄청난 귀성 인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광주시는 무등경기장 앞 공터에 임시터미널을 만들기도 했다.



3시간 줄서기는 기본

1982년 10월1일, 광주역 앞 광장에 전남 각 시군으로 내려가려는 귀성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3시간 이상 기다려야 겨우 기차를 탈 수 있었다.



고향가는데 이정도 고생쯤이야..

1980년대 초반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광주시 동구 대인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표정.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가족의 고속버스터표를 구하기 위해 처다찬 시멘트 바닥에서 며칠씩 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총장로 거리는 우리들 세상~

1986년 9월19일, 추석 연휴 금남로·총장로 일대 도심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꼬까웃을 입은 어린이들이 거리를 차지했다.

김용철씨가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 26일 밤 김용철(5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 가족이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8월18일 입대해 아들 태훈(18)이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지금쯤 강원도의 신병교육대 내무반에서 점호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아들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가족들도 온통 아들 이야기 기쁩니다. 용철씨 가족은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야간행군 이야기와 각계전투 등 훈련 이야기가 빼곡합니다. 강원도에 서는 벌써 아침이면 입김이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아빠와 엄마(51), 누나(19)의 안부를 묻습니다.

용철씨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자원한 아들이 뜻대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용철씨가 편을 듣습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편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철씨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억도부 감복으로 항상 자녀들에게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용철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항상 무뎠던 아버지로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넸던 것이 가슴에 한이 되었나 봅니다. 아들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고,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한 단어 썼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좀처럼 편지가 안 써지네요. 한참 생각에 잠겼던 용철씨가 편을 움직입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이렇게 떨어져서 보내는 명절이 처음이네. 마음이 상하네. 올 아들에게 하나 고백할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대. 그런데 아들은 아빠를 너무 밀어내는 듯한 생각이 든다. 아들 사랑해. 이번 퇴소식 때 만나면 정말 깊은 포옹을 하고 싶다. 기대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아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태훈이가 되길. 화이팅! 아빠가 아들에게.”

투박한 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용철씨는 좀처럼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에 눈물이 그렇게 맺히고, 눈가를 훔치는 모습은 어딘지 여색해보입니다. “사랑한

추석 앞두고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가족 40여일전 입대해 막내 그리워 울컥 보고싶은 태훈이 생각하며 “사랑한다” 편지



김용철씨 가족이 추석을 나흘 앞둔 26일 밤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좀처럼 편지가 안 써지네요. 한참 생각에 잠겼던 용철씨가 편을 움직입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이렇게 떨어져서 보내는 명절이 처음이네. 마음이 상하네. 올 아들에게 하나 고백할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대. 그런데 아들은 아빠를 너무 밀어내는 듯한 생각이 든다. 아들 사랑해. 이번 퇴소식 때 만나면 정말 깊은 포옹을 하고 싶다. 기대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아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태훈이가 되길. 화이팅! 아빠가 아들에게.”

투박한 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용철씨는 좀처럼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에 눈물이 그렇게 맺히고, 눈가를 훔치는 모습은 어딘지 여색해보입니다. “사랑한

’라는 말을 쓸 때에는 부끄러웠는지 입가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딸도 가슴이 찡합니다. 한 살 터울인 동생과 그동안 왜 그렇게 티격태격했는지. 다투기만 했던 동생이 집을 떠난 지 40여일 밖에 안됐지만 벌써 보고 싶습니다.

용철씨의 아내도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온통 아들 걱정뿐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프루야 KIA타이거즈 경기 소식도 전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으며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 태훈이 이야기 전부지만요. 용철씨는 군대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들, 태훈이가 잘 해내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눈시울이 젖어있는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이 빛나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0년전 고향가는 길, 힘들어도 그땐 행복했었지

추석은 평소엔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일자리 또는 학교진학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나갔던 자녀, 형제, 친척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았다.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던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타향살이의 설움과 귀성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줄이며, 조상의 산소를 찾아나서는 동안 웃음과 미소는 집안 가득했다.

가족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지친 심신을 치료해주는 명약이었던 셈이다. 1970, 80년대 추석은 그랬다.

독거노인, 독신 등 1인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가족 해체’와 익명 사회 속에서 빛어지는 사회 병리현상에 직면해 있는 2012년 추석.

광주일보의 독자 여러분에게 가족과 함께여서 따뜻했던 30여년 전 추석의 일상을 담은 광주일보 자료사진과 더불어 추억을 선사한다.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nt .1 2인 예약시 관광지무료쿠폰!
3인 예약시 아이스 뮤지엄 2매!
4인 예약시 **렌트48시간 중형차급!**

Event .2 선박 **20%** 할인!

배타고 가는 제주여행~! 일~목 **149,000**
제주여행 PKG 금~토 **169,000**
한라산등반 1박2일 **129,000**

쿠폰01

노력항내관광지
할인쿠폰

쿠폰02

노력항내
펜션 리조트 호텔 할인

쿠폰03

노력항내
렌터카 할인

일정안내

1일자 중식/수목원테마파크(세계적인 열음조각 열음공전과 트리아트전시관)/도개비 도로(거꾸로 올라가는듯한 자동차! 신비한 착시현상)/한라 수목원(60여종의 희귀식물과 광이오름을 끼고 삼림욕의 최고명소)/천왕사(한라산 정맥에 기암괴석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아름다운절)/석식 후 숙소이동

2일자 조식후 전일관광/유리의성(세계의 유명한 유리예술 조형물이 실내_외에 대규모로 전시되고있) /화산 꽃자왈 화산 상태 숲길 올레길(40분)/점보빌리지(코끼리소 국내 유일의 세계 최대 코끼리 테마 쇼) /중식/쉬리언덕(롯데 풍차 정원 -중문해수욕장 아름다운 올레길) /**직불관광***(서귀포 칠십리 유람선 OR 디마파크 / 서커스월드) /석부작갈매기 마동원(황금물결이 춤추는 감동발과 제주 특산물 재배 현장체험) /천지연폭포(하늘과 땅이 만나는곳!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새연교(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새섬을 연결한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 /시크릿스테마파크(누드조각, 누드미술관, 성문화관등 예술로 승화시킨 종합문화공원) /석식후숙소이동

3일자 조식후 전일관광/공예품 전시장(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제주공예품등) /선녀와나무꾼(60~70년대 그때 그시절로의 여행) /**직불관광***(매직미술소OR몽골리안 마상쇼) /제주마 승마체험(제주의 상징 제주마와 함께 짜릿한 승마체험) /중식/성읍민속마을(전통초가 관람 제주인의 억척스런 생활 엿보기) 일출랜드(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곳 미천동굴과 자연테마공원) /신앙심지코지(자연 수석장으로 불리는 해안 절경 명소, 성산일출봉 조망) /아트랜드(분재와 미술관의 만남 귀여운 반달곰의 재롱도 특별함을 선사함)

포함사항 : 전일정/입장료/중식3회/차량료/안내가이드/주차료/간식/생수
불 포함 : 숙박료/석식료/기사.가이드 봉사료/작품관람2회 기타등.

NAVER 정남진투어 검색 를 검색하세요!